

지구 반대편, 멀고 작은 분단국가를 궁금해하던 프랑스 소녀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꿈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동네 한 바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옥태원 클라쓰’

뷰파인더
코로나시대
‘락다운’의 역설



VOL. 52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 52호 독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8월입니다. 힘든 일상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재한외국인의 출국 후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심사와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시설이 방역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관계기관 합동 방역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출범시켰으며, 제13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등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뜻깊은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 등 고유 업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VOL. 52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 통권 제52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0년 8월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 및 디자인 한국표준협회미디어(02-2624-036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PEOPLE ZONE

4

나에게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 레아 모로(Lea Moreau)
순창시 관광 담당 공무원

8

동네 한 바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옥태원 클라쓰’

12

심표카페
낮선 곳에서 혼자라 느끼는 당신에게

14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해외 인재를 한국인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12



4



8



16



28

WIN-WIN ZONE

16

출입국 인사이드 ①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출입국 인사이드 ②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22

어울림 공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26

이런 게 적극행정!
코로나19 확산, 부처 합동 입국자 관리로 막는다

28

뷰파인더
코로나시대 ‘락다운’의 역설:
이동의 자유가 선사한 가치

32

2020 법무부 웹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틀리다, 다르다」

36

문화돌보기
‘나’로 존재하기를 선택하다 - 영화 「브루클린」

38

숫자로 보는 출입국
코로나19 국내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1차 저지선

40

출입국 인사이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글 | 김소리 사진 | 주성완

순창시
관광 담당 공무원

레아 모로
(Lea Moreau)



사랑에 빠지는 일은 언제나 신비롭다. 처음엔 사소한 것 하나가 마음을 끄는가 싶더니,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폭 잠겨버린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순창 공무원’ 레아 모로(Lea Moreau)의 한국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지구 반대편, 멀고 작은 분단국가를 궁금해하던 프랑스 소녀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꿈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꿈을 살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나요?

10살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역사에 열정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책 속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과 함께 남북한의 사진을 봤습니다. 프랑스가 인권의 나라, 자유를 무척이나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 이와 상반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래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의 분단역사는 잘 알지만 한국의 역사는 아무래도 잘 몰라요. 생소한 한국의 역사가 어린 제 마음에 아주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해 저도 따라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었죠. 몇 차례 여행으로 방문한 한국은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대학에서 관광학을 공부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산업에서 일하며 해외 여행객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 해외에서 6개월간 인턴십을 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하고 싶었는데,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한국 친구 한 명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광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을 소개받았고, 그분이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과 열정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사실 그 전까지는 광주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경험해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주를 만난 건 그야말로 ‘운명’이었어요. 알고 보니 민주화 역사로 유명한 도시였고, 사람들도 특유의 에너지가 가득했죠. 광주에 머물면서 전라도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 지역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한국으로 이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를 찍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지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Jeolla Go’와 ‘Leadventure’ 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eolla Go에는 전라도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어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서울, 부산, 제주 등 특정 지역만 알려지는 게 아쉬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야말로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광주에서 일하는 동안 전라도 곳곳을 여행하며 부지런히 비디오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느낀 점은 풍경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다양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전라도는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 역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절하죠.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온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이곳에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예술가나 기업가, 운동가가 많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지요. 땅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농부들은 어땠고요. 저도 프랑스 리옹 옆 시골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삶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순창에서의 삶도 더할 나

위 없이 만족스럽고요.

Leadventure는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만든 채널로, 제 일상의 소소한 팁과 요령을 공유하는 개인적인 채널입니다. 저의 한국 생활을 친구들과 가족, 프랑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지요. 그래서 프랑스로 간간히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을 텐데,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역시 언어와 비자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삶터를 완전히 옮겨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미리 좀 하고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보다 어려운 게 비자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난 3년간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소규모 사업자 입

장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업과 비용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아무래도 꺼리게 되죠. 저는 석사나 박사 학위가 없어서 워킹비자(E-7)를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했어요. 워킹홀리데이비자(H-1)에 이어 임시워킹비자(C-4)를 두 번 신청해 워킹비자 취득에 필요한 경험을 겨우 쌓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닿아 순창시의 공무원이 되었을 때가 한국에서의 가장 기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약이 끝나면 비자도 끝나기 때문에, 영주비자(F-5)를 받아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간절해요. 이민 요건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은 저를 고용해주신 순창시 덕분에 한시름 놓은 셈이죠(웃음).

순창시 공무원이라니, 이력이 특이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순창시의 다양한 관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순창시티투어버스인 '풍경버스'를 타고 순창시를 돌아보는 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순창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이곳의 역사,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이나 각종 인터뷰, 이벤트 등에 참여해 순창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소개드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순창과 전라도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기획, 제작, 촬영, 편집, 업로드하고 있지요. 순창군청 채널도 있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타깃인 제 채널과는 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관과 관광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레아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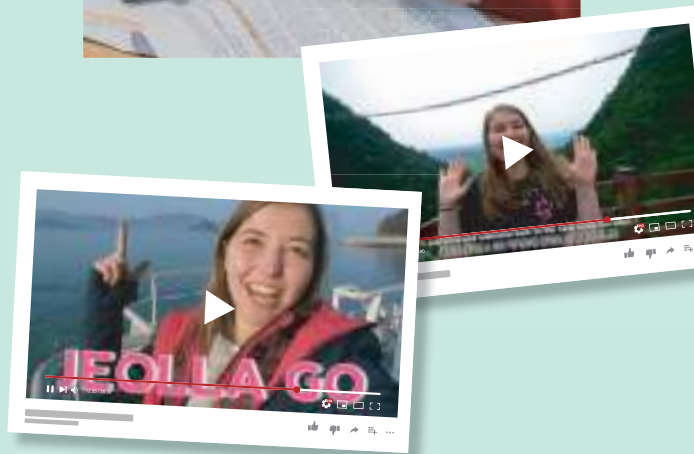
우선은 한국이 무척 아름다운 여행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매번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 마음을 빼앗긴 이유를 새삼 다시 떠올리게 되죠. 매일매일



“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진심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경험하며 살아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역시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 사랑의 출발점이었던, 그 옛날 할아버지의 서재에 서처럼요. 한국에 정착하기 전 여행으로 몇 차례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방문할 때마다 역사적 이벤트를 목격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 번 방문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2018 남북정상회담 때는 이 일의 의미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제작했는데, 촬영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날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가족 중에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분이 있어요. 국적을 떠나 우리는 결국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해가 가요. 저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대한민국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역사적인 변화들, 그 의미 있는 사건을 기억하는 일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한국 사회와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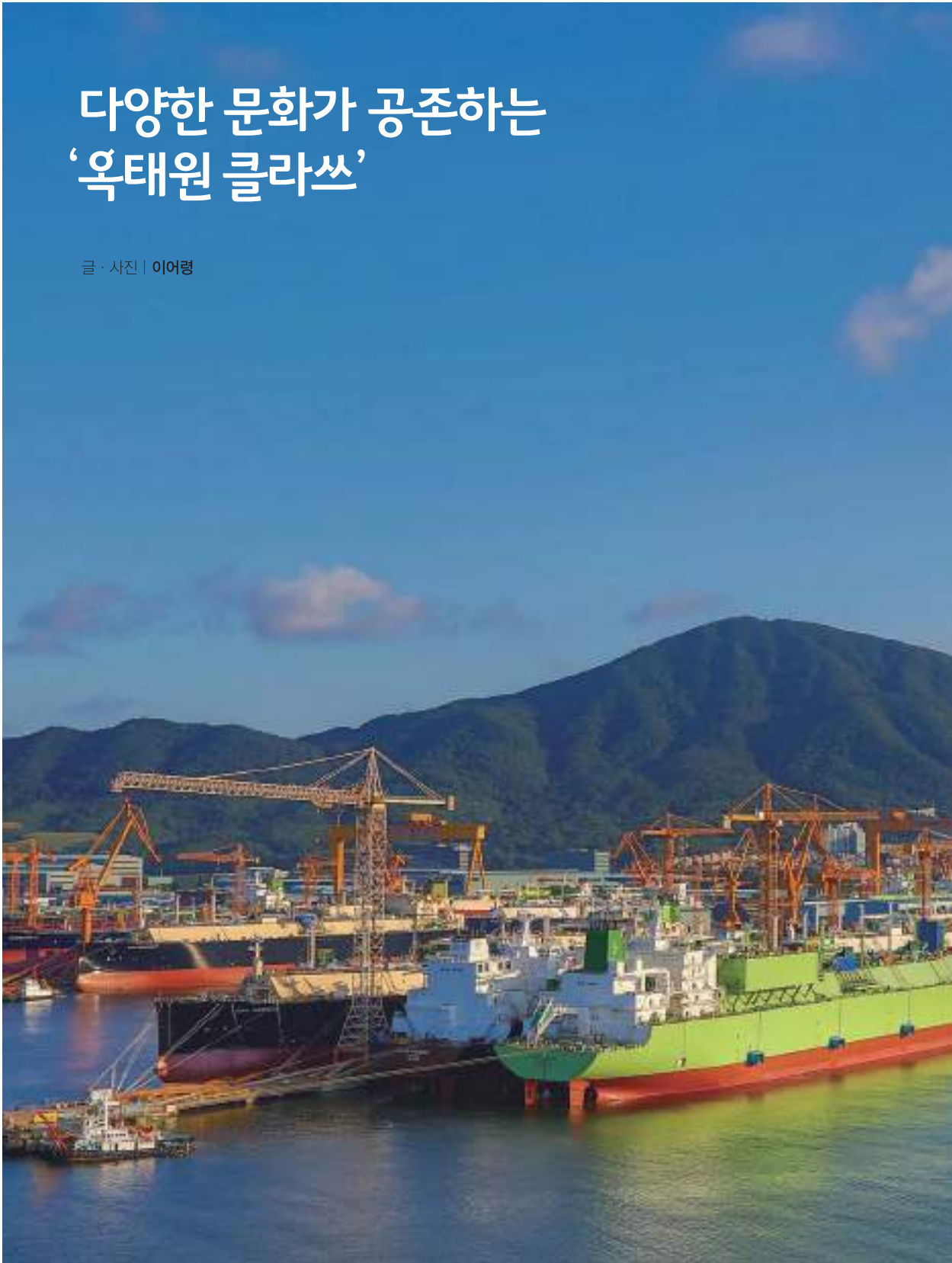
레아에게 한국은?



나에게 한국은 ‘정’ 혹은 ‘우리’입니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지요. ‘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립하니까요. 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을 선택한 거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도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 같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갈수록 한국인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행복하고, 같이 슬퍼하며, 같은 마음을 공유해요. 덕분에 타향 땅에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이 낯선 따뜻함이 좋아요. 나를 둘러싼 주변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도 가족 같이 지내고 있고, 관계가 점점 강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껴요. 한국에 대한 제 사랑도 함께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진심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옥태원 클라쓰’

글 · 사진 | 이어령





아름다운 섬 거제의 한 골목에 도착하자 왕복 2차선 거리를 수놓은 외국어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제의 옥포동은 조선소로 파견 온 외국인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특별한 정취를 자랑하게 되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음식점이 모였다 하여 옥태원(옥포동+이태원)이라 불리는 곳. 이 작은 거리에서 세계를 엿본다.

거제의 핫플레이스 옥포동

갯가 내음이 물씬 풍기는 거제도 옥태원 거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외국어로 적힌 다양한 간판이 손님을 맞이한다. 옥태원의 분위기는 이태원 못지않다. 수제맥주집과 터키·베트남·이탈리아·스페인·멕시코 등 이국적인 요리 전문점, 외국인 전용 바에 클럽까지 준비하다.

거리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면 이국적인 분위기는 더욱 짙어진다. 옥태원 거리에선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 낯선 문화의 향기가 골목골목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지나가는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일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옥포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즐긴다. 주말이면 거제 앞바다에 요트를 띄우고 가족과 함께 요트에 올라 와인이나 치즈를 즐기거나, 해변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해외 휴양지의 바닷가에서나 볼 법한 낭만을 거제에서도 느낄 수 있다.



작고 조용했던 동네의 화려한 변화

40여 년 전만 해도 거제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멸치잡이 사내들은 만선(滿船)을 꿈꾸며 외포에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갔고, 아낙네들은 바위에 붙은 생굴을 쫓다. 항구에는 멸치와 굴을 물으로 내다 팔기 위한 통통배만 유유히 바다를 떠다녔다. 그야말로 한적한 섬이었다. 그중에서도 작고 조용한 동네였던 옥포동이 외국인의 성지가 된 데는 10년 전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관광객의 증가로 상권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곳의 조선소 때문이다.

국내 조선소가 2000년대에 호황을 이어가면서 이들 기업은 거제의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두 기둥이 되었고, 거제는 조선업의 중심지이자 국제도시로 자리 잡았다. 조선업이 유명세를 타자 유럽 등 외국의 선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배를 발주했다. 건조계약이 체결되면 선주사는 설계 단계부터 수십 명의 감독관이나 기술자를 3~4년간 조선소에 파견했다. 가족과 함께 거제로 들어온 이들은 조선소와 비교적 가까운 옥포동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많은 외국인 기술자들이 단독주택의 주거형태를 선호했다. 그래서 덕포(옥포2동) 등지에는 외국인이 모여 사는 전원주택촌도 생겼다. 이곳에 가면 넓은 마당을 갖춘 2층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며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이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옥포동에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프랑스학교와 거제국제외국인학교도 있다. 이주민 자녀들이 학업을 배우는 동시에

거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지역민’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조선업이 활기 넘칠 때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 주려는 외국인들로 일대가 북새통을 이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 년 새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거제에 사는 외국인도 줄어 예전과 같은 활력을 느낄 수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거제로 속속 모여들고 있어 떠난 이들의 자리를 메워주고 있다.

거제 외국인들의 소중한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국제당’

밀물 들어오듯 외국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옥포동 거리의 모습도 변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랑방이자, 외국인 커뮤니티의 거점 노릇을 하게 된 것. 그러나 같은 상황의 외국인끼리만 지내다 보니 우리나라 문화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3년 문을 연 ‘거제국제교류센터’는 거제의 외국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거제국제교류센터는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이 거제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거제 시민과 외국인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주었다.

센터를 만든 조영승 대표 역시 오랜 외국생활을 경험했기에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거제에 파견되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거제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게 됐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조 대표는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탄생한 것이 지금의 ‘국제당’ 카페다. 국제당은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까지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1층과 2층은 카페, 3층은 취미미술을 배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4층 루프탑에서는 아침에 요가수업이, 저녁에는 무비나이트가 열린다. 특히 2층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는 국제당에서 가장 사랑받는 포토스팟 중 하나. 대부분의 책이 거제의 외국인들에게 기증받은 원서로 채워져 있다.



카페 메뉴들도 특이하다. 순수 농사 지은 딸기로 만든 케이크와 음료, 거제의 외국인들에게 직접 전수받은 레시피대로 만든 케이크 등 문화적 교류가 돋보이는 메뉴들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당은 보드게임모임, 그림수업, 요리수업, 제빵수업, 요가수업, 북클럽, 프랑스어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거제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제당에서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틀린 펜필드 프 라이스 씨는 “2년 전 남편을 따라 옥포동에 왔을 때 무섭고 두려웠지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국제당에서 북클럽 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만족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교류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제 사람들. 오늘도 옥포동 거리에는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는 미소와 눈짓이 오간다. **共**



낯선 곳에서 혼자라 느끼는 당신에게

글 | 나경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00만 명이 넘는다. 우리가 유학이나 일을 위해 해외로 가는 것처럼, 이들도 나름의 꿈과 목표를 안고 한국에 왔다. 그러나 인종, 국적, 문화 차이에 언어적 소통 문제까지 더해지면 서로 간에 크고 작은 편견이 생긴다. 외부인에 대한 편견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상대가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한다 해도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일이다. 이처럼 주관적·객관적 편견에 눌러 일상을 버텨내지만, 나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외로움을 달래 줄 사람은 없어 보인다. 타국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같은 외국인끼리의 소통이 더 어려운 이유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동자 A 씨는 한국에 와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고통스러운 것이 ‘의사불통’이라고 말한다. 언어로 생각을 전달할 수 없으니 고용주인 한국인들과 오해를 빚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기숙사에서 단체로 숙식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타국 생

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 여럿이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시비나 충돌이 잦은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에 유독 힘든 날도, 고된 업무로 인해 몸이 아픈 날도 A 씨는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보단 보통 참는 쪽을 택한다. 표현 자체가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 불행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A 씨가 가족들을 두고 이곳에 와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상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처한 환경에 위축되니 무작정 '참고 견디자'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는 소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는 과도하게 본다.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면서 당당하던 본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행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도리어 불행해지는 것이다.

A 씨의 경우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챙기고 위로해 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변사람에게 겁 내지 않고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끼리 서로 통하는 부분들도 보일 것이다.

의사소통 문제, 외로움,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적극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각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나 외국인 복지센터에 서는 언어 교육이나 의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

베트남에서 온 B 씨는 요즘 부쩍 불안과 외로움이 커졌다. 가족과 통화하는 것이 타향살이의 가장 큰 낙이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져서다. 처음에

는 전화를 하면 가족 모두가 반가워하며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애뜻한 감정은 시들해지고 아내나 아이들의 반응이 무미건조한 느낌이다. 일상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할 말도 없어 서먹함만 커진다. 그렇다고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이 뻔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B 씨. 무엇이 가족을, 자신을 위하는 길인지 어렵기만 하다.

표현할 때 관계는 비로소 깊고 단단해진다

아무리 핏줄로 이어진 관계라지만 가족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며, 같은 감정을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역만리 타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이다. 각자가 눈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이면 자연스레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도 쌓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정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화나 편지로 마음의 대화를 자주 하고 서로에게 위로나 격려의 표현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생각을 자주 공유하며 가족들과 공통된 대화주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共

위축되고
불안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1. 내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본다.

현재 일어난 일, 앞으로 예정된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적어본다.

2. 이 일들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추측해본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상상한 뒤 적어본다.

3. 일어날 문제들을 보고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해본다.

해결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작성해본다.

4. 작성한 방법들을 매일 체크하면서 행동 수정을 해본다.

처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경순님은 강서교육청 강서WEE센터 상담사, 평생교육 부부코칭 아카데미 강사, 관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부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티움심리상담센터의 센터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인재를 한국인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의 위협과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이 말은 위기를 맞은 동시에 더욱 절실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혈연만이 국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을 통한 국가 발전’과 ‘다 함께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되면 귀화 적격 심사를 거쳐 귀화 허가를 받는다.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약 170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고자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 올해 6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하였다. 개정

된 고시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우수인재들이 더욱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국내·외 기업·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전문 분야 특별 지식·기술 보유자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의 잠재적 능력 및 국익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가점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경력 및 소득요건을 현실화하고 추천권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폭넓게 개선했다.



쁘베틀라이 니콜라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

Q. 특별귀화 대상자에 선정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A. 한국에서 특별한 인재로 선발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 개인적으로도 내 가족과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나는 내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나는 잠시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 내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일하는 과학 분야에서는 말이다.

2020년 2분기
우수인재 복수국적 선정 대상자를
소개합니다



참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Q. 해당 제도를 신청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도를 알고 한국에 정착할 결심한 것은 아니고, 지내다 보니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겨서 한국에서 살아보니 한국의 문화가 정말 좋았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모두 마음이 열려 있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각 개인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해 귀화를 결심했다. 한국의 교육열 덕분에 학자로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할 때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얻고 지원을 받았다. 동료들도 다 좋고, 똑똑한 학생도 많아서 보람을 느낀다.



‘공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지난 5월 1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이 열렸다. 원래는 2월 말 진행 예정인 행사였으나 코로나로 미뤄지면서 긴 기다림 끝에야 모든 멘토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위촉식과 함께 임기 동안 사회통합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양성교육도 진행됐다.

글 | 김소리 사진 | 신세호, 이어령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하 ‘멘토단’)’ 제1기가 발족됐다. 최종 선발 인원은 총 35명으로,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 간 상호 소통을 돕는 다양한 사회통합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강의 진행, 각종 미디어를 통한 내·외국인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및 홍보 활동, 정책자문 등이다. 멘토단은 지난해 시험 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정식으로 멘토단에 참여하게 된 네팔 출신의 수잔 샤키야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 소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멘토단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날 멘토 자격으로 자리를 채운 이들 중에는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방송인이 많이 보였다. 방송이나 강의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 선발 시 우대를 받기 때문이다. 멘토단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1차에서는 신청서와 자기소개 서류, 영상, 각종 증빙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가 진행된다. 2차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강의 능력, 대한민국 사회활동 내용, 활동예정지역 등 심사기준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35명은 아래와 같다.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 분	출신국	성 명
유럽	러시아	김 알렉산더
	러시아	엘리자베타 우체셰바
	러시아	일리야
	벨기에	줄리안 쿤타르트
	불가리아	토도르
	아제르바이잔	칼릴자데 니하트
	영국	티자드 데이빗 앤드류
	터키	엘마스 할르즈
	프랑스	파비앙

구 분	출신국	성 명
아메리카	멕시코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미국	스테파니
	브라질	카를로스 고리토
	코스타리카	몰리나 오캄포 엘리아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텐 엘레나
	카자흐스탄	오네게
	카자흐스탄	자밀라
	키르기즈스탄	알림쿨로바 아이다
서남아시아	네팔	수잔 샤키야
	네팔	이채빈
	방글라데시	아식
	인도	선저이 꾸마르
	파키스탄	아만울라
	파키스탄	자히드 후세인
동아시아	몽골	윤승주
	베트남	김유정
	베트남	김지윤
	베트남	쩨티탄프형
	베트남	홍라희
	일본	아즈마 요시에
	중국	관림
	중국	김정룡
	중국	쑤앤
	중국	안순화
	중국	왕예진
	중국	이동화

장관님과 함께한 위촉식 및 오찬간담회

멘토단 위촉식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멘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멘토들은 각자 본인의 이름이 적힌 위촉장을 받고 장관님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후 추 장관과 멘토단의 오찬간담회가 이어졌다. 둘러앉은 식탁에서 멘토단이 된 소감, 각종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멘토단의 사전 정책제안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현행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에 적힌 ‘에일리언(Alien)’ 표기에 대한 변경 요청 건이었다. 멘토들은 이 같은 영문 표기에서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벨기에의 줄리안 쿤타르트는 최근에 이사한 외국인 친구가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낸 사례를 들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에 한국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제도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건들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줄리안은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됐다. 이전에는 이런 소통의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변화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자히드 후세인 역시 “한국생활 초기 유학생 시절에는 법무부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한국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 멘토단은 코로나19 사태와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추 장관은 “무엇보다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과제”라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혹은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며 점차 이민자에 공감하고, 이민자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과 이민자의 생각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관인 나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는 “법무부가 멘토단으로부터 개선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말씀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주시면 좋겠다”며 멘토단이 대한민국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힘주어 밝혔다.

이민정책 이해하고, 멘토 역량 높이고!

멘토단 양성교육은 김현채 이민통합과장이 알려주는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의 이해’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을 운영해왔다. 김 과장은 “다른 부처에도 각종 외국인 정착 지원정책이 있지만, 이민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책들 중심에서 키를 잡고 대한민국 사회통합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는 멘토단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라며, 이민자가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역설했다.

이어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이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의 이해’ 교육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체류자격, 가능 활동, 체류유지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임에도 강의 중간 퀴즈에 너도나도 손을 들며 답을 외치는 것은 물론, 모두들 끝까지 집중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열띤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전달력 있게 말하기 위한 스피치 이론과 실제’ 강의가 이어졌다. 멘토단 활동의 주가 되는 것이 ‘강의’인 만큼 멘토들에게는 한국어 스피치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연수 및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기회도 많이 갖게 된다. 해당 수업 1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구성하고 몸짓과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청중에게 가닿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각자 1분 스피치 대본을 작성한 뒤 스피치 실습을 진행했다. 모두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물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스피치 역량을 뽐냈다. 앞으로 재한외국인과 자국민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멘토단의 역할이 기대된다. **共**





60년 걸쳐 소외된 여성 자립 도운 노력, 결실 맺다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한 영거 수산나 메리 여사는 1959년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대구·경북 지역의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다.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과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업무에 힘쓴 화성시외국인 복지센터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글 | 신시내 사진제공 | 법무부



‘세계인의 날’,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유공자포상식이 5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자는 취지에 따라 2008년 처음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번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문화행사 등을 취소하고 유공자포상식으로 축소하여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와 가족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특히 6·25전쟁 70주년인 올해는 전쟁의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나눔의 손길을 보내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유공자포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7점 ▲법무부장관표창 7점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외에 수상자의 공적 영상 상영과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됐다.

작은 마음들이 만든
아름다운 변화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한 영거 수산나 메리 여사는 1959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수산나 여사는 60년 전 23세의 나이로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외삼촌과 사촌오빠 2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었기에 한국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두 눈으로 직접 본 이 나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효성여자대학교 영어교수를 시작으로 대구카톨릭여자기술원장 등을 역임했고, 영국의 옥스팜(OXFAM)에서 원조금을 받아 대구·경산지역에 ‘무학농장’을 운영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돕기도 했다. 1967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도서 『무국화』를 출판해 서방세계에 한국을 알렸다. 2011년에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대구 명예시민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박인규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장은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봉사에 19년간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1급 중증 장애인이자 중국인인 부인을 둔 당사자로서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들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고 컴퓨터 수리 및 보급 등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또한, ‘어울림 봉사단’을 결성해 매월 경로당과 장애인 시설에서 이·미용 봉사를 이어오며 이민자의 조기적응과 상호교류를 도왔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재한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앞장서왔다. 미등록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까리파스어울림학교’ 등을 설립해 이민자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도왔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17점의 상이 돌아갔다.

이날 기념식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우리 국민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참상을 극복해 근대화를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었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 늘 재한외국인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당부했다. **共**



작지만 강한 출입국 행정 전천후 기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글 | 신시내 사진 | 이동훈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근대화거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13명 남짓한 적은 인원이지만, 전국의 출장소 중 드물게 ‘종합출입국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화기에애한 분위기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끊임없이 미담이 들려오고 있다.

전국 유일의 ‘종합출입국행정업무’ 출장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는 출장소 규모지만 군산시, 군산항, 충남 장항항, 군산 미군 비행장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출입국·외국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종합출입국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인 셈이다.

군산항은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 석도-군산 간 여객선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고 간다. 정원 1,200명의 여객선 2대가 운행 중이며, 1일 평균 승객이 약 1,200~1,600명에 이른다. 군산출장소는 군산항에 내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입국심사를, 오후에는 출국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선 운항이 멈춰 관련 업무도 중지됐지만, 2019년 기준 입출항 횟수가 117회에 달할 만큼 적지 않

은 인원이 이곳 군산항을 찾았다.

군산출장소는 군산항과 장항항을 이용하는 어선과 각종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박심사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항만을 통한 밀입국과 무단 하선, 범법자 등의 출입국 사범을 관리하고 승선 검색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테러보안대책협의회 및 월례보안간담회를 월 1회 열고 있다. 2019년 선박 업무 현황으로는 입항선박이 2,327건, 출항선박이 2,317건이며, 이 중 승선검색횟수는 16건을 기록했다.

인근에 미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미군의 출입국심사도 군산출장소에서 맡고 있다. 입국심사가 필요하면 직접 기지를 방문해 심사를 진행한다. 미군 관계자가 비자 업무를 위해 출장소를 찾기도 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곽범현** 소장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군산출장소는 2019년에 사증 835명, 체류 허가 12,744명을 처리하는 등 민원인 방문도 꾸준한 편이다. 때문에 좀 더 쾌적한 출장소 환경을 갖추기 위해 올해 12월 신청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96㎡로 건설할 계획이다. 군산출장소는 2021년 상반기에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곽범현 소장은 “현재 청사는 민원 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환경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로운 청사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민원인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출장소는 예년 대비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입국심사증을 출력·교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여권에 도장을 찍는 입국날인 방식이었으나, 전국 최초로 해당 방식을 도입한 지방출장소가 됐다. 덕분에 입국자 처리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더불어 신속한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위해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장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출장소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이 한창이던 4월, 외국인의 자가격리지 이탈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방 안에 두고 자신들의 위치를 고의로 숨긴 채 외

출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군산출장소의 박송식 계장이었다.

“유학생들의 사연은 안타까웠으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당연한 처분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설명했다.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학교 등을 통해서 호소했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간 고의성이 있어 결국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전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한 일을 했으며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은 개인의 사정이나 인정에 기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송식
계장

활기찬 에너지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군산출장소

이처럼 군산출장소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역지사지’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 곽 소장은 “체류 업무 등 민원 처리 시 항상 민원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민원인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한 직원은 이같이 적극적인 근무 태도로 감사의 서신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출장소 전 직원은 본인의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익히고 있어 출장소 내 대부분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의 공백이 발생해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곽 소장은 “군산출장소 전 직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군산출장소의 또 다른 장점은 젊은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분위기다. 직원 대부분이 80~90년대생 토레라 딱딱하기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다. 덕분에 툭툭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너나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각 직원이 출입국 업무의 전문가로 활약하는 것이 이곳 출장소의 목표다. 끝으로 곽 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즐거워야 민원인을 편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웃어도 하루, 화내도 하루’라는 말처럼 이왕 주어 진 하루를 출근해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共**



이승빈 공무원
박희석 · 김준현 사회복지무원

7월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던 민원인이 아이를 안은 채 청사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출장소 정문에서 업무 중이던 이승빈 공무원 직원과 박희석 사회복지무원은 민원인을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달려갔다. 다행히 민원인은 의식이 깨어 있었다. 함께 넘어진 아이도 큰 부상은 없었다. 이들은 민원인을 조심스레 민원실로 옮겼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상태를 확인하니 민원인은 임신 초기 상태였다.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잘 해결한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건강을 회복한 민원인은 “덕분에 가슴 아픈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출장소를 찾아 감사를 표했다. 박희석 사회복지무원은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당황했지만, 관련 교육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대응할 수 있었다.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물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했을 일이겠지만, 매우 뿌듯한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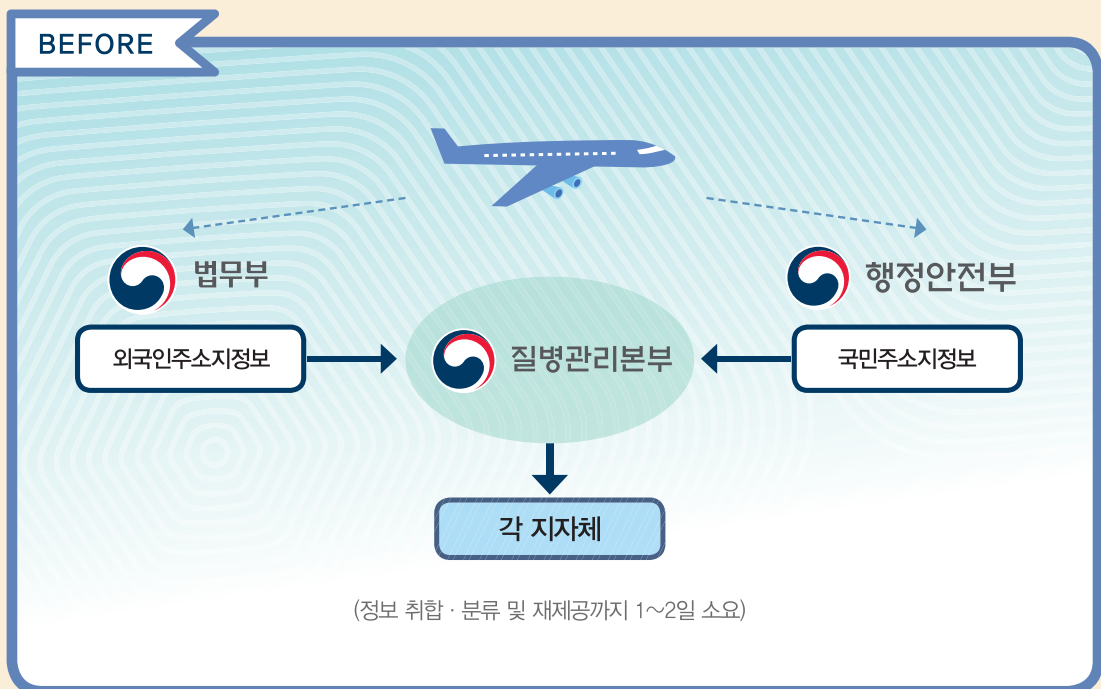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부처 합동 입국자 관리로 막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은 한층 강화된 규정을 세워 외국인 입국 관리와 질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전에는 내·외국민의 출입국기록 및 국내 체류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각 시·군·구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가 외국인 주소지 정보, 행정안전부가 국민 주소지 정보를 각각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이것을 각 부처로 전달하는 식이었다. 지역감염을 관리하는 지자체 역시 입국하는 내·외국민의 체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정보 취합과 분류, 제공까지 1~2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속한 자료 제공이 절실했다. 또한, 자칫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을 낮추어야 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내·외국민의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인정보공동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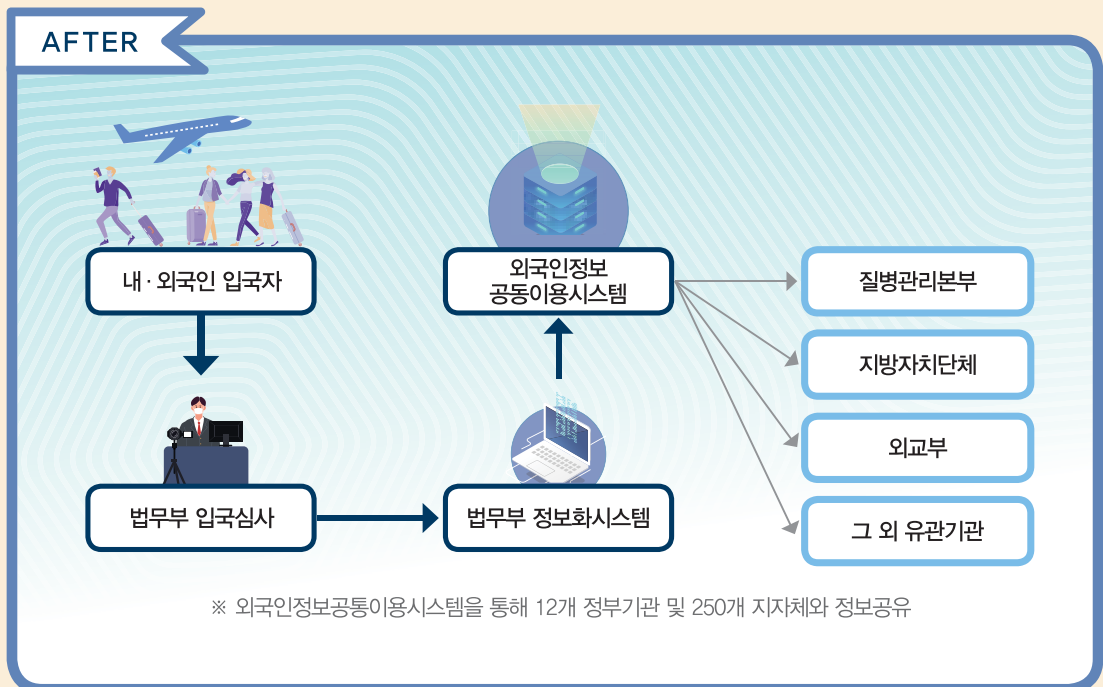


지난 6월, 국민 온라인 평가로 선정된 ‘혁신·행정제도 개선’ 최우수 부서 4곳 중 이민정보과의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콜센터’가 포함됐다. 이 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템(FINE)을 통해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정보는 교육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자국민 출국자 정보는 외교부 등 관할부처의 담당 업무에 맞는 입·출국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방역과 재한외국인 보호를 적극 서포트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발맞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안내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와 연계해 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의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주말과 공휴일도 동일하다.

이 같은 시스템 및 운영제도 개선으로 선제적인 해외입국자 정보 관리와 민원응대를 수행한 덕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방역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었다.



코로나시대 ‘락다운’의 역설: 이동의 자유가 선사한 가치

글 | 심나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정책공보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 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코로나19는 인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7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00만 명, 사망자는 59만 명에 달한다. 미국 340만, 브라질 192만, 인도 96만, 러시아 75만 명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인구 및 경제력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어떠한가? 영국(인구 6,600만 명/1인당GDP 4만 2,000달러)과 스페인(4,700만 명/3만 달러)이 각각 확진자 29만, 2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1만 3,000여 명(사망 296명)이라는 확진자 수와 대비시켜 보면 이들 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숫자로만 보건대, 코로나19는 대부분 국가에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락다운(lockdown)’ 혹은 이동제한은 코로나19 확산을 초기에 저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까지 제한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과 생겐 협약으로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던 나라까지 앞다투어 국경을 닫으면서 세계화의 시계는 거꾸로 돌려진 듯했다.

그 결과는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상품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1분기 3%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는 18.5%가량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관광업 타격은 특히 심각한데, UN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와 관광(COVID-19 and Tourism)’ 보고서는 이동제한으로 인해 세계 총생산의 1.5~4.2%에 해당하는 관광수입(1~3조 달러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WB)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 보내는 송금액도 전년에 비해 올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거시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동제한 조치가 몰고 온 먹구름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다. 한국은 전면적 이동제한이 없었지만,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노동자가



국가 간 관계는 상호성(reciprocity)을 기초로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은 데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예외적 개방성은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많아졌다. 전체 일자리 중 서비스업이 70%에 가깝고 노동자의 80% 가량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라는 옵션을 가진 노동자보다 일 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양자택일의 선택지만 가진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까닭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된다고 세계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다.

전염병, 이동제한으로 통제 못 해

우리는 이동의 자유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음을 팬데믹과 락다운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여실히 깨닫고 있다. 200여 개 남짓한 국가 중 150개 이상의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일부 혹은 전부 닫았다. 완전한 이동제한 조치 대신 이른바 3T[진단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 능력과 입국절차 및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매우 예외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관계는 상호성(reciprocity)을 기초로 한다. 코로나19 확진

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은 데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예외적 개방성은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빗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동시에 경제활동의 전면적 중단 없이 방역조치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물론 효과적인 방역대책에 대해 그 무엇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세계가 지난 7개월간 보여준 코로나 대응을 일부 비교해볼 수는 있다. 이동제한 조치의 전염병 확산저지 효과에 대해 여전히 설왕설래이지만, 135개국의 방역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임금지 조치가 확산방지 효과를 보인 데 반해 국제 및 국내 이동제한 조치는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동제한의 강도와 도입 시기, 지속기간과 더불어 코로나 테스트·추적·치료·격리 등을 비롯한 사회제반 역량

변수가 세밀하게 고려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이동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준거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 죽겠다'는 성난 민심을 더 이상 이겨낼 재간이 없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 특히 관광수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경 빗장열기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최근 유럽 밖 15개 '안전국가'(한국, 중국, 캐나다, 모로코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경 개방을 권고했다. 여름철 유럽에서만 수백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 내 이동제한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 각국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실험하고 있다.

선진국 국민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도적 지원 및 노동이주자 송금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복잡적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자리가 부족했던 국가들은 해외로 나간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했다. 네팔의 경우 총 생산의 30% 안팎을 송금이 차지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보다 14%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과 세계 경기침체로 최소한 4,900만 명이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낸 그간의 노력이 일거에 소거될 위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 활동조차 제약을 받아 결핵, 홍역 등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런던보건대학은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1명을 살리는 대신 140명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사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팬데믹이 드러낸 우리 사회 구성원, 이주자

팬데믹 한복판에서 아직은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다만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확실히 배운 것 하나는 이동제한 조치가 완벽한 대안

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포에 기반을 둔 막연한 대처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만 2억 7,000만 명의 사람이 직업, 학문, 가족결합 혹은 재난, 분쟁 등 각종 이유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했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스위스는 의사 인력 중 47%, 간호사 인력 중 32% 가량이 외국 태생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의료 인력의 30% 안팎이 이주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퇴원 후 이주민 간호사에게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한 것은 영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담당하는 역할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도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을 계기로 간병인의 80%가 중국동포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파종 및 수확시기에 이주노동자(계절노동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대다수 선진국의 농업이 유지될 수 없음도 깨달았다. 독일이 지난 4~5월 전세기를 띄워 동

유럽 출신 계절노동자 8만 명을 받아들인 것은 이주노동에 기댄 선진국 농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국내 한 농촌에서도 농가가 2주간의 격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올해 첫 계절노동자를 받은 바 있다. 선주민 일자리를 탈취한다는 이유로 좀처럼 환영받지 못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당면해 그 존재와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팬데믹으로 야기된 이동성 위기는 필연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다. 세계화가 '개점휴업'에 들어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촌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나만(우리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고립주의가 피상적 안정감은 주었는지 몰라도 범지구적 방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면 모두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인프라 및 역량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높은 장벽 뒤에 숨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바이러스의 습격은 피해도 또 다른 무언가가 삶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지도 모른다. **共**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는 출국 전, 퇴직공제금을 확인하세요!



 **적립일수 확인 : 1666-1133**

 **상담직원 연결 : 1666-1122**

 **홈페이지 : www.cwma.or.kr/hanaro**

 **모바일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에 대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적립된 공제부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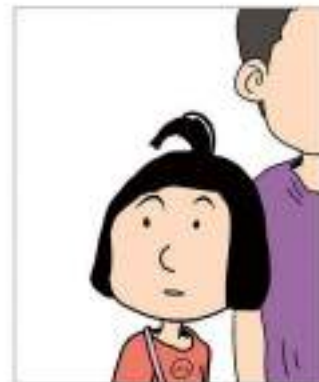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252일 이상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본국으로 출국, 만 60세 이상, 타 업종 취업, 부상·질병 외 기타사유)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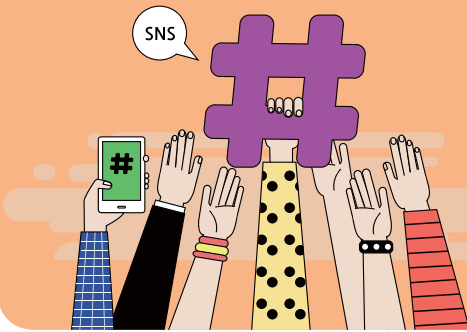
6



나와 모습이 다른 사람.
겉코 틀린건 아니랍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재한외국인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걸음입니다.



출입국서비스와
외국인정책정보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나’로 존재하기를 선택하다

— 영화 「브루클린」

글 | 김소리



감독 | 존 크로울리

주연 | 시얼샤 로넌, 노닐 글리슨, 에모리 코헨

어딘가로 떠나는 일은 무언가를 두고 오는 일이기도 하다. 물성을 가진 몸은 명확하게 옮겨지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삶과 떠나온 삶 그 사이 어디쯤엔가 필연적으로 림보(limbo)가 생긴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저마다 다른 모양을 띤다. 그 안에 갇혀 의문과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는 당신에게 영화 「브루클린」을 추천한다.

떠나는 마음, 떠나보내는 마음

서로의 얼굴과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마음씨 고약한 캘리 부인의 잡화점에서 주일에 두어 시간씩 일하는 주인공 에일리스는 언니를 통해 한 신부님의 후원을 받게 되고, 뉴욕 브루클린으로 갈 기회를 얻는다.

“언니만 불쌍하게 됐네. 평생 혼자서 엄마나 모셔야겠지.” 캘리 부인의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뉴욕으로 떠날 짐을 챙기며 에일리스는 언니에게 말한다. “이 옷들 다 언니가 사준 거네. 나는 그럴 능력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야.” 언니는 대답한다. 자신 역시 그래서 보내는 거라고. 옷이야 얼마든지 기쁘게 사줄 수 있지만 너의 삶을 내가 사줄 수는 없다고.

우리는 어떤 참담함 때문에 먼 길에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대로의 나를 견딜 수가 없어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타인의 삶이 얼마쯤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괴어 나를 받쳐주는 누군기를, 그의 인생 일부를 던고 길을 나서는 것이다.

뉴욕으로 떠나는 배의 갑판. 화면은 떠나고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천천히 비춘다. 일렁이는 손짓들. 경계를 넘는 모든 인생에는 저마다의 서사와 눈물이 있다.

꿈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의 서글픈 종착지

브루클린에 도착한 에일리스는 낮에는 고급 백화점에 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 ‘혼스럽고 무뚝뚝한 이방인’으로 낙인찍는 폭력적인 시선이 에일리스의 하루를 빼곡히 채운다. 아일랜드에서 온 첫 편지, 에일리스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얇고 메마른 편지지가 두고 온 삶과의 유일한 연결끈이었으리라.

크리스마스 날, 에일리스는 아일랜드 노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한다. 모두 젊을 때 이곳에 와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도통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다. 식사를 마치고, 한 노인이 아일랜드 민요를 부르기 시작한다. 분명 무언가를 바라며 떠나왔지만, 지금은 무엇을 위해 이곳에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인생들.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이들의 표정에 한없이 아득한 단어들이 차오른다. 이민자들은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들이다.

버거웠던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댄스파티에서 이탈리아 남자 토니를 만나고 에일리스의 일상에도 한 줄기 빛이 생긴다. “언니, 토니 덕분에 이제야 내 삶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전에는 아니었거든. 몸은 여기 있지만 삶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 이제 반쯤은 바다를 건넌 것 같아. 큰 발전이지?”

그러나 답장 대신 돌아온 것은 갑작스러운 언니의 부고였다. 에일리스는 토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여간 아일랜드로 떠난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에일리스는 가장 세련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일자리가 없어 떠나올 때와 달리 자기를 필요로 하는 직장도 생겼다. 홀로 남은 엄마가, 마음을 나눌 오랜 친구가 있었다.

사려 깊고 다정한 남자 집 패럴도 만났다. 에일리스는 결혼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집과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

었다. 엄마에 대한 걱정, 자신을 향한 외부의 기대, 치열할 필요 없는 안락한 관성에 젖어들었다. 토니에게서 온 편지를 에일리스는 한참 동안 펼쳐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를 선택하는 용기

브루클린과 아일랜드 사이에서 주저하는 에일리스를 각성시킨 건 캘리 부인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에일리스가 뉴욕에서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에일리스가 말했다. “잊고 있었어요.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비용을 곱씹는다. 내가 잃은 것의 찬란했던 면만을 복기하며, 현재를 불행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캘리 부인은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웅졸하게 서로를 들여다보기 바쁜 이 마을, 이곳에서 살던 희망 없는 시간을 상징한다. 집과의 감정 역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향수병의 연장, 현재의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였는지 모른다. “제 이름은 에일리스 피오렐로예요!” 토니의 성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한 에일리스는 캘리 부인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에일리스에게 브루클린은 오직 ‘나’로 서야 하는 곳이다. 살아온 배경, 사람들의 기대, 그들에 대한 연민, 안정, 관성,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겠다는 고독한 의지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건 ‘내 선택’뿐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인생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배에서 에일리스는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을 닮은 한 아일랜드 소녀를 만난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한다. “향수병에 걸리면 죽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견디는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뜰 거예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희미하게 다가와요. 당신의 과거와 아무 관련도 없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오로지 당신만의 사람을. 그럼 깨닫게 될 거예요. 거기가 당신의 인생이 있는 곳이라는 걸.” **共**

코로나19 국내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1차 저지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 등 승객정보 분석 작업을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승객의 방문국가 기록 등을 조회, 입국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1차 저지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선별적인 차단을 통해 24시간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한 사전 탑승차단 및 입국제한 조치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과 관계 기관 정보공유는 물론 환승과 항만 모니터링,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보호,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 등 실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7.20. 기준)



현지차단

사전 탑승차단 현황

20,475

국내차단

공항만 도착자 입국 제한조치 현황

207



특별입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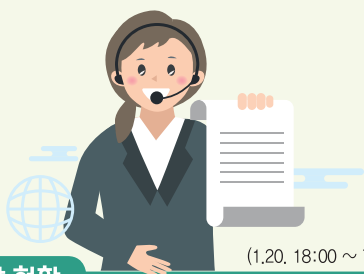
검역소 입국불허 요청 현황



시설격리거부: 47건

공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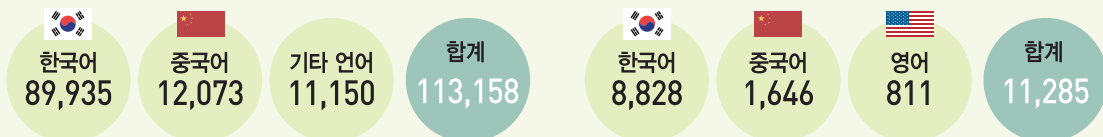
격리통지서 교부 현황



(1.20, 18:00 ~ 7.19, 15: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현황

비상근무 상담 현황 (한·중·영 3명 비상근무)



관계기관 정보공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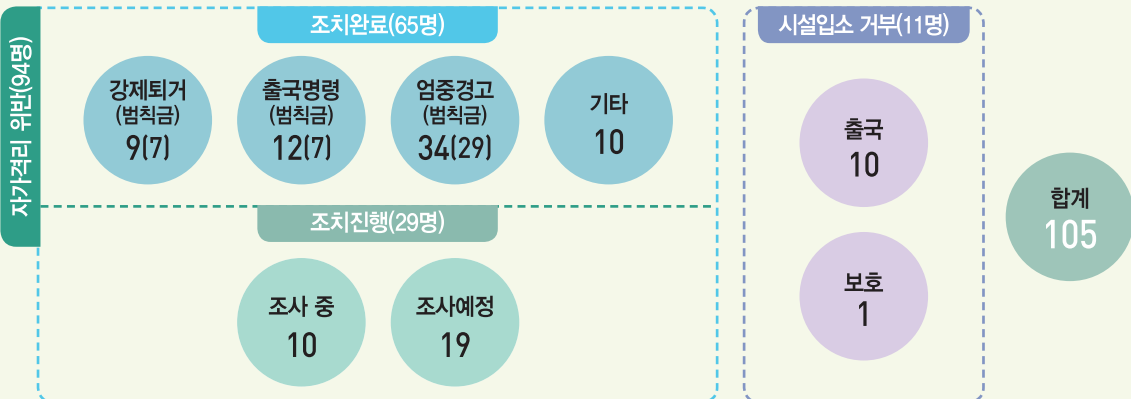
('20.1.21.~)



정보 제공
2,734,387

질본, 보건복지부, 중대본,
교육부, 노동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인사처,
해양경찰청, 국회사무처

자가격리 위반자 발생 및 처리 현황



INSIDE

01

6·25 70주년, 참전용사 후손 준영주비자 최초 발급

법무부는 6·25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거주(F-2)비자를 최초로 부여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거주비자를 부여받은 우수인재 68명의 국적은 인도, 미국, 터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이었으며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가 16명이었다. 이번에 부여한 거주비자는 일반비자보다 체류기간이 길고 자유로운 학업과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 취업할 때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영주비자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고 밝힌 미시리 사로채(태국, 23세) 씨는 “할아버지께서는 해군 복무 당시 한국전 파병에 자원하셨다. 항상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뜻깊은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국제연합(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 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2

국적신청, 방문 전 예약 가능해져

법무부는 7월 15일부터 만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신청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한 뒤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고(국적상 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그 밖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예약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예약제 이용을 권장한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출국 전 전 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 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6월 22일부터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또한,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표기된 경우도 휴대폰 개통 가능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한글이름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화교와 외국국적동포를 포용하고 이들의 생활편의를 향상하며 이들을 호명하는 일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이들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 및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존> 페이스북 리뷰 이벤트

[명사] 공존(共存)

함께한다는 뜻이기에, 함께하겠습니다

<공존> 여름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소중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 여 기 간

2020년 8월 20일 ~ 9월 20일



참 여 방 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팔로우!
2. 공존 리뷰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 품

의견을 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콘(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발표

2020년 9월 2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당첨을 확인하세요!



7월 15일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2020년 7월 15일부터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 및 방문 기관을 예약한 뒤 해당 기관에 방문해주세요.
전용 창구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

방문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신청 7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가능

해당 제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2021년부터 국적 업무 전면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업무

- 허가업무: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함)

* 단순 상담, 국적취득사실증명 등 기타 증명서 발급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 우측 [방문예약] 메뉴에서 예약 → 예약증 소지 후 방문
- * 카카오프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클릭 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메뉴로 연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